

# 羅天益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炳局 · 尹暢烈

## The research into the life and medical philosophy of Na Cheon-ik

Kim Byung-kuk · Yun Chang-yeol

Through this research author discovered the fact that Na Cheon-ik inherited the 'Bi Wi Nai Sang Seol' of Lee Ko, which bases spleen and stomach as the fundamentals of our body, and stated the importance of rise of the spleen ki. He also stated the ways in which spleen and stomach could be damaged and in doing so, he made sub-divisions into 'Sik Sang Bi Wi Ron' and 'Eum Sang Bi Wi Ron' to explain how the diseases and treatment could be different. As well, he presented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visceras and the dialectics of triple energizer.

---

### I. 緒 論

中國의 金末期와 元代初期에는 兵亂이 甚하여 百姓이 避亂하기 奔走했고, 營養 攝取不良 및 恐怖 등으로 인해 脾胃의 疾病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脾胃가 諸 機能을 잃어 體力이 떨어진 상태에서 流行病 등이 겹쳐 많은 死亡者를 냈었다<sup>1)</sup>. 金元四大家중의 한 명인 李杲의 脾胃論의 誕生은 이러한 時代的 背景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歷史的 必然

---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5期卒業準備委員會 編譯, 東垣脾胃論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64.

性を 가지고 있다<sup>2)</sup>. 이러한 時代的 狀況을 李杲는 “大抵人在圍城中, 飲食不節, 乃勞役所傷, 不待言而知, 由其朝饑暮飽, 起居不時, 寒溫失所, 動經三兩月, 胃氣虧乏久矣, 一旦飽食太過, 感而傷人”<sup>3)</sup>으로 表現했다.

李杲의 脾胃學說은 『內經』과 張元素 등의 理論的 基礎위에 脾胃의 生理, 病理, 發病 및 辨證論治를 系統的으로 발전시킨 것인데 그는 元氣의 作用을 매우 重視하여 氣는 人體 生命活動의 源泉이며 臟腑活動의 表現이자 產物로 보았고 아울러 內傷病이 氣不足이나 脾胃가 損傷받은 중에 喜怒過多, 飲食不節, 寒溫不適, 勞倦所傷등으로 인해 誘發된다고 하여 “內傷脾胃 百病始生”이라 하였고 “脾胃가 一傷하면 五亂이 互作한다”라고 하였다<sup>4)</sup>.

이러한 李杲의 醫學思想은 易水學派에 많은 影響을 미쳤는데 易水學派는 張元素를 始祖로 하여 臟腑證候의 病機를 研究하여 治療하는 醫學流派로 張元素는 臟腑寒熱虛實을 주장하였고, 李東垣은 脾胃論을 주장하였으며, 羅天益·王好古 등은 이들의 이론을 繼承, 發展시켰다<sup>5)</sup>.

특히 羅天益은 李東垣의 門下에서 十餘年을 修學하여 “東垣先生之學 醫之王道也”라 하였으며 治病의 根本을 脾胃에서 찾아 李杲의 理論을 더욱 발전시켰다<sup>6)</sup>. 그는 脾胃內傷을 飮傷과 食傷으로 나누었으며, 勞倦傷을 寒熱로 나누어 虛中有寒과 虛中有熱로 辨別하였다. 또한 寒熱疾病에 瀉熱除寒하는데 있어서 三焦와 氣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으며, 服藥의 誤謬로 생긴 危害에 대한 經驗과 敎訓으로, 後人이 거듭 前轍을 밟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詳細하게 論하였다.

이에 筆者는 易水學派의 한사람으로 李杲의 脾胃內傷學說에 대하여 精通하였고, 더욱 進一步 發展시켰으며, 또한 理論을 臨證治驗과 結合시켜 설명한 羅天益에 대하여 生涯와 醫學思想을 『衛生寶鑑』을 중심으로 研究하여 얻은 바가 있어 이를 報告하는 바이다.

## II. 生涯 및 著書

### 1. 生涯

羅天益의 字는 謙甫이고 元代 眞定의 藁城(지금의 河北省 正定의 藁城縣)에서 태어났으

2) 李經緯·李志東, 中國古代醫學史略, 河北省,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28.

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8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內外傷辨惑論·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6.

4) 정 면·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朝醫學 形成에 미친 影響」,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Vol. 9, p. 448.

5) 李 華 碩士學位論文, 趙獻可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p. 15.

6) 정 면·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朝醫學 形成에 미친 影響」,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Vol. 9, p. 467.

며7), 宋嘉定十三年에 나서 元至元二十七年에 생을 마쳤으니(1220年~1290年), 享年70歲였다8).

그는 東垣으로부터 醫學을 十餘年間 배웠으며 東垣의 學術思想에 대하여 매우 깊고 透徹한 理解가 있었다. 이에 대해 『衛生寶鑑·胡廣序』에서는 “謙甫, 東垣李明之之門人, 東垣在當時, 有國醫之目, 已達竅奧. 蓋謙甫升其堂而入其室者, 發言造詣, 酷類其師, 有裨于前人之未備.”라고 하였다. 羅氏는 潛心苦學으로 인해 李氏의 진정한 傳함을 얻고 마침내 당시에 이름을 떨친 醫學家가 되었다9). 또한 그는 일찍이 元나라 太醫를 맡으면서 醫術을 行하기로 有名하였으며 潔古와 東垣이 傳受한 證治方藥을 研究하였으니 潔古와 東垣의 學術은 王好古와 羅天益 두사람을 통하여 더욱 光大해졌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杜思敬은 말하기를 “海藏王好古進之, 宗其道者也. 羅天益謙甫, 紹述其術者也.”라고 하였다10). 그는 또한 寒涼峻利之害에 대해서 極論하였는데 劉完素, 張從正이 주장한 寒涼攻下에 대립하여 독특하게 旗幟를 세웠다.

1246年(宋淳祐六年)부터 1283年(元至元二十年)까지 元나라 兵士가 南下할 때 羅氏는 軍隊에서 太醫를 담당하여 軍隊를 따르면서 各地로 出發하였는데 六盤山에 이르기까지 丞相과 長官등의 病을 治療하여 풍부한 臨床經驗을 쌓았다11). 이것은 그의 醫案중에 다 비교적 상세하게 記載되어 있다.

그는 論病함에 『素問』과 『難經』에 根本을 두고 制方은 隨機應變하여 대개는 東垣의 精義를 따르고 자신의 意見을 加하며 諸家의 意見을 參考하였으니 淮南 蔣用文은 稱하기를 “李氏之學得羅氏而益明”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東垣의 學說에 대하여 깊은 造詣가 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12).

羅氏는 理論과 實踐의 결합에 힘썼는데 그의 著作중의 많은 論點은 다 臨證治驗을 통하여 설명한 것이다. 또한 그는 그의 老師를 대단히 恭敬하여서 東垣이 세상을 떠난 지 三十餘年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祠而事之如平生”하였으니 尊師의 本보기가 될 만 하다.

## 2. 著書

羅天益의 著書로는 『內經類編』과 『衛生寶鑑』이 있는데 『內經類編』은 이미 遺失되어 傳해지지 않고 『衛生寶鑑』이 羅氏의 現存하는 유일한 著書이다.

李杲는 晩年에 『內經』의 研究를 통하여 心得한 것을 系統的으로 整理하였는데 編輯을

7) 丁光迪 編著, 中醫各家學說·金元醫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7, p. 277.

8) 史仲序 著, 中國醫學史, 中華民國, 國立編譯館, 1984, p. 109.

9) 裘沛然·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176.

10) 孔健民 著,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131.

11) 俞慎初 著, 中國醫學簡史,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p. 230.

12) 裘沛然 主編, 中國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116.

羅天益, 羅奉師에게 命하여 三年이 지나 이루어졌다. 그 책의 全名은 『內經類編試效方』인데 刊版될 때에 改名하여 『東垣先生試效方』이라고 하였다. 그 책의 流傳되는 내용은 매우 적다. 그 책의 編輯으로서만 보면 羅氏가 『內經』에 대해 깊은 造詣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予受學于東垣先生, 先生授以內經要奧, 仍授以制方之法.”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가 著述한 『衛生寶鑑』은 다 『內經』의 理論과 李杲의 用藥方法에 依據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衛生寶鑑』은 1281년에 編纂되었고 24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一卷부터 三卷은 ‘藥誤永鑒’인데, 그 뜻은 “藥誤永鑒者, 知前車之覆, 恐後人之蹈之也.”<sup>14)</sup>이다. 羅氏는 臨床上에서 조금 注意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는 論述을 加하였다. 예를 들어 ‘春服宣藥辨’, ‘福醫治病’, ‘無病服藥辨’, ‘古方名實辨’, ‘妄投藥戒’등 25篇이다.

四卷에서 二十卷까지는 ‘名方類集’으로 本書의 중요한 부분인데, “古今之方, 擇之已精, 詳而錄之, 使後人有所依據”<sup>15)</sup>라 하여 方劑 700여 가지를 記載하였으니 그 중에는 적지 않은 羅氏의 自制方이 있다. 중요한 方劑의 方義에 대해서는 그 뜻을 詳細하게 解說하였다. 21卷은 ‘藥類法象’인데 “氣味厚薄, 各有所用, 證治增損, 欲後人信之.”<sup>16)</sup>라 하여 藥物의 氣味厚薄과 升降浮沈의 作用을 參작하여 分類하였고 아울러 109種 藥物의 功用과 主治, 配合 및 炮制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22卷에서 24卷은 ‘醫驗紀述’인데 羅氏의 臨證經驗으로 心得한 것을 記述한 것이다. 概括하여 “遇如是病, 用如是藥, 獲如是效, 使後人慎之.”<sup>17)</sup>라고 하였다. 끝에는 補遺一卷이 있는데 이는 後人이 重刊하면서 더한 것이다.

本書는 理論과 法則을 갖추고 條理가 整然하며 選方이 正當하고 아울러 驗案 48例를 기록하여 作者의 豐富한 學文과 經驗을 충분히 反映하였으니 오늘날에도 가치 있는 臨床治療의 著作인 것이다.

### Ⅲ. 師承關係

羅天益은 張元素의 弟子이며 金元四大家의 한사람인 東垣 李杲先生의 門下에서 學文을 닦았으니 東垣先生의 醫學觀은 羅氏의 醫學思想의 바탕을 이루었다.

羅氏가 東垣先生을 만나게 된 事緣은 이러하다.

東垣은 壬辰年에 북쪽으로 건너가서 東平에 살았고, 甲辰年에 鄉里로 돌아왔다. 하루는 友人 周都運 德父에게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道를 後世에 傳하고자 하나 그 傳할 사람을

13) 俞慎初 著, 中國醫學簡史,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p. 230.

14) 羅天益, 衛生寶鑑·硯堅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6.

15) 羅天益, 衛生寶鑑·硯堅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6.

16) 羅天益, 衛生寶鑑·硯堅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6.

17) 羅天益, 衛生寶鑑·硯堅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6.

얻기가 어려우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德父가 말하기를 “羅天益 謙甫가 性行이 敦朴하고 일찍이 學文이 精微롭지 못한 것을 恨스러워하여 學文에 뜻을 두었으니 당신이 道를 傳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後日에 周道運과 羅天益이 李杲를 禮訪하였다. 東垣이 一見하여 말하기를 “너는 돈버는 것을 배우러 온 醫人인가, 傳道를 배우러 온 醫人인가?”라고 하니 謙甫가 말하기를 “傳道일 따름이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學文을 배우게 되니 日用할 飲食은 東垣先生에게 의지하였다. 東垣先生은 羅氏가 배운지 三年이 되어 工夫한지 오래인데도 게으르지 않은 것을 기쁘게 여겨 白金 二十兩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生活이 甚히 어려운 것을 안다. 내가 動心하여 中道에 그만둘 것이 두려우니 이것으로 妻子를 보살피거라.”라고 하자, 謙甫가 辭讓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先生이 말하기를 “내가 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어찌 細小한 것에 인색하겠는가, 다시 辭讓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으니 先生의 期待한 바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先生이 臨終함에 平日에 著述한 바의 책을 整理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 같은 類대로 分類하여 책상에 놓고 謙甫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책을 너에게 주니 이것은 李明之, 羅謙甫를 위한 것이 아니고 天下 後世를 위한 것이니 삼가히 여겨 煙沒시키지 말고 미루어 행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그의 나이 72歲이었으니 辛亥 二月 二十五日이었다<sup>18)</sup>.

이러한 이야기로 東垣先生과 羅天益의 關係를 엿볼 수 있다. 羅天益은 東垣先生을 尊敬하며 平生의 學文의 스승으로 섬겼고 東垣先生 또한 그를 매우 아껴 그를 通해 자신의 學文을 後世에 傳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羅氏의 學術思想은 全體的으로 東垣先生의 脾胃內傷學說의 基礎를 繼承하였고 또 거기서 發展한 바가 있었다.

또한 羅氏의 人品은 謙虛하고 精誠스러워서 學術上에서 成就한 바가 있으면 功을 스승에게 많이 돌렸다. “予受學于東垣先生, 先生授以內經要奧, 仍授以制方之法.”이라고 하곤 하였다. 臨床에서 卓越한 治療效果가 있어서 사람들의 讚揚을 받았을 때도 역시 功을 師祖에게 돌려 “潔古之學, 可謂知其要者矣”, “潔古之學, 有自來矣”라고 말하여 자기를 誇示하지 않았다<sup>19)</sup>.

이와 같이 羅氏는 張潔古와 李杲의 學術思想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醫學思想, 특히 脾胃內傷學說을 더욱 발전시킨 功勞가 크다 하겠다.

## IV. 醫學思想

### 1. 學術思想

18) 朴贊國·尹暢烈 編, 醫學漢文, 서울, 成輔社, 1987, pp. 60~61.

19) 丁光迪 編著, 中醫各家學說·金元醫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7, p. 278.

## 1) 李杲의 脾胃內傷學說에 대하여 밝힘

羅氏의 學術思想은 全體的으로 李杲의 學說의 基礎를 계승하여 發展시켰고, 『衛生寶鑑』에서 脾胃內傷論에 대하여 비교적 전면적으로 밝혔다. 그는 脾胃의 生理功能을 설명하기를 “土, 脾胃也. 脾胃, 人之所以爲本者.”<sup>20)</sup>라고 하였고 “營運之氣, 出自中焦. 中焦者, 胃也. 胃氣弱不能布散水穀之氣, 榮養臟腑經絡皮毛, …… 四時五臟皆以胃氣爲本, 五臟有胃氣, 則和平而身安, 若胃氣虛弱, 不能運動滋養五臟, 則五臟脈不和平”<sup>21)</sup>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李杲의 “人以胃氣爲本”의 主導思想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內經曰肝生于左, 肺藏于右, 心位右上, 腎處于下, 左右上下四臟居焉. 脾者土也, 應中爲中央, 處四臟之中州, 治中焦, 生育榮衛, 通行津液, 一有不調, 則榮衛失所育, 津液失所行”이라 하고, “胃者衛之源, 脾者榮之本, …… 脾胃健而榮衛通”<sup>22)</sup>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脾胃가 臟器중에서 일으키는 維系作用과 脾胃와 榮衛津液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밀하게 밝혀 놓은 것이다.

또한 羅氏는 脾氣의 升發에 관하여 중시하였다. 그는 時人이 立春후에 牽牛子, 大黃의 類를 이른바 ‘宣藥’이라 하여 春主宣泄의 말에 應한다고 생각해 함부로 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리고 “當少陽用事, 萬物向榮生發之時, 惟當先養脾胃之氣, 助陽退陰, 應乎天道以使之平. 今反以北方寒水所化, 氣味俱厚苦寒之劑投之, 是行肅殺之令于奉生之月, 當升反降, 伐脾胃而走津液, 使營運之氣減削, 其不能輸精皮毛經絡必矣. 奉長之氣從何而生, 臟腑何以稟受? 脾胃一衰, 何病不起?”<sup>23)</sup>라고 하였는데 사람은 단지 自然界의 변화에 順應하여서 항상 脾胃의 生發之氣를 培養하는데 주의하면 臟腑는 稟受받는 바가 있게 되고 人體는 健康을 유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反하면 脾胃는 受損하여 氣衰하고 五臟六腑는 稟受받는 바가 없어서 百病이 生하게 된다고 명확하게 주장한 것이다. 바로 脾氣升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東垣은 『內外傷辨惑論』에서 “飲食自倍, 腸胃乃傷, 此混言之也, 分之爲二, 飲也食也 …… 飲者無形之氣, 傷之則宜發汗, 利小便, 使上下分消其濕 …… 食者有形之物, 傷之則宜損其穀, 其次莫若消導”<sup>24)</sup>라고 하였는데 이에 관해 羅天益은 食傷脾胃論과 飲傷脾胃論으로 進一步發展하여 研究하였다. 食傷에 대해서 그는 “食物無務于多, 貴在能節, 所以保沖和而遂頤養也. 若貪多務飽, 飲塞難消, 徒積暗傷, 以召疾患, 蓋食物飽甚, 耗氣非一, 或食不下而上湧, 嘔吐以耗靈源, 或飲不消而作痰, 咯唾以耗神水. 大便頻數而泄, 耗穀氣之化生, 溲便滑利而濁, 耗源泉之浸潤. 至于精清冷而下漏, 汗淋漓而外泄, 莫不由食物之過傷, 滋味之太厚. 如能節滿意之食, 省爽口之味, 常不至于飽甚者, 卽頓頓必無傷, 物物皆爲益”<sup>25)</sup>이라고 하였는데 飲食不節

20)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15.

21)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20.

22)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42.

23)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

24)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8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內外傷辨惑論·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71.

하고 腸胃俱實하면 胃氣는 腐熟하지 못하고 脾氣는 運化하지 못하여 三焦의 氣가 升降하지 못해 疾病을 招來하게 되니 飲食을 節制하는 것과 疾病을 豫防하는 것이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說明한 것이다.

羅氏는 “人之生也，由五穀之精，化五味之備，故能生形。經曰，味歸形，若傷于味亦能損形，今飲食反過其節，以致腸胃不能勝，氣不及化，故傷焉<sup>26)</sup>”이라고 하여 食傷의 病機를 說明하였고 食傷脾胃의 主要症狀은 心胃滿而口無味，氣口脈緊盛이라고 하였다. 治療方法에 있어서는 食傷의 輕重에 根據하여 分別하였는데, “氣口一盛，得脈六至，則傷于厥陰<sup>27)</sup>은 傷함이 輕한 者니 枳朮丸의 類로 消導할 수 있고, “氣口二盛，脈得七至，則傷于少陰<sup>28)</sup>은 傷함이 重한 者니 木香檳榔丸, 枳殼丸의 類로 消導할 수 있고, “氣口三盛，脈得八至九至，則傷太陰，填塞悶亂則心胃大痛<sup>29)</sup>은 食傷의 危重한 者이므로 급히 攻下, 發越을 行하여야 하니 備急丸, 瓜蒂散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飲傷은 飲酒過度하거나 飲水, 飲乳로 脾胃를 損傷시킨 것이니 “夫酒者大熱有毒，氣味俱陽，乃無形之物也<sup>30)</sup>”라고 하였고, “酒入于胃，則絡脈滿而經脈虛，脾主于胃行其津液也，陰氣者，靜則神藏，躁則消亡，飲食自倍腸胃乃傷。蓋陰氣虛陽氣入，陽氣入則胃不和，胃不和則精氣竭，精氣竭則不營于四肢也.”<sup>31)</sup>라고 하였다. 대개 酒味는 甘辛하고 氣味俱陽이니 그 性質이 酷烈하고 火熱有毒하여 傷沖和, 損精神, 涸榮衛, 竭天癸, 夭人壽한다. 飲傷의 主要症狀은 吐逆惡心, 頭目昏眩, 神困多睡, 志意不清, 脾泄瀉利이며 그 治法에 대해서 羅氏는 牽牛子, 大黃의 類로 攻下하는 것에 대하여 反對하였다. 그것은 酒性이 大熱하여 이미 元氣를 傷하였는데 다시 瀉하면 腎水의 眞陰과 陰血을 損傷시킨다고 認識한 때문이다. 대신 葛花解醒湯, 法制生薑散으로 發汗시켜 得汗하면 愈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五苓散으로 去水利小便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두가지는 그 濕을 上下로 分消하는 것이다. 또 水飲이 脾胃를 損傷하여 停積不消하면 胸膈痞悶, 咳嘔痰水, 噎醋吞酸, 噦亦惡心, 頭目昏眩, 不欲飲食 등의 症을 發하여 法制生薑散, 藿香散, 枳朮湯, 導飲丸, 蠲飲枳實丸 등의 方을 쓴다고 하였고, 一切의 冷水 및 潼乳酪水에 의해 傷하여 腹痛腸鳴하고 米穀不化하면 神應丸을 쓴다고 하였다.

東垣은 “始病熱中，若末傳爲寒中”이라고 하였는데 羅氏는 東垣의 說을 더욱 發展시켜 勞倦所傷을 虛中有寒과 虛中有熱로 分類하여 說明하였다. 勞倦으로 元氣를 耗傷하는 것은 脾胃內傷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인데 中陽이 虧損되면 寒이 안에서 生하여 ‘虛中有寒’과

25)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7.

26)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 27~28.

27)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8.

28)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8.

29)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8.

30)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35.

31)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34.

元氣下流가 되니 陰火가 上衝되는 ‘虛中有熱’과는 다른 病理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虛中有寒의 중요한 症狀은 脾胃虛冷, 心腹疼痛, 嘔吐惡心, 不喜飲食, 頭目昏眩, 嗜臥懶言, 肢體倦怠, 足脢發冷, 臥不欲起 등이니 勞倦過度하면 脾土를 損傷하여 中氣가 不調하고 升降이 滯해지며 다시 寒邪를 받아 脾陽이 不振하고 榮衛가 失養해져 津液이 不行해지는 까닭이다. 治法은 溫中益氣, 散寒健脾해야 하는데 補中調脾는 甘劑로써 하고 散寒溫胃는 辛劑로써 하여 甘辛이 相合하면 脾胃가 健全해지고 榮衛가 通하게 되니 理中丸, 建中湯, 參朮調中湯 등의 方을 위주로 하고 아울러 沈香蠶甲散, 十華散등의 方으로 處方한다고 하였다.

虛中有熱의 主要 症狀은 虛勞客熱, 骨蒸潮熱, 胸滿氣短, 惡心煩熱, 咽乾頰赤, 怔忡盜汗, 肌肉消瘦, 四肢困倦, 百節煩疼 등인데 勞倦으로 傷脾하면 元氣를 耗損하고 氣衰하여 火生하게 되면 火熱이 傷氣하게 되니 火와 元氣는 兩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脾胃는 居中屬土하여 萬物之母가 되니 五臟에서는 孤臟이라 하고 三焦에서는 中焦에 속하여 脾胃가 病들면 榮衛不調하고 升降이 失司하여 邪氣가 上下左右로 이르지 않는 바가 없게 된다. 治療는 “勞者溫之, 損者益之”<sup>32)</sup>의 原理에 입각해 “臟中積冷榮中熱, 欲得生精要補虛”<sup>33)</sup>라고 認識하여 甘溫除熱, 補氣升陽하여 甘藥으로 補氣泄熱하고 酸味로 耗散之氣를 收斂하여야 하니 調中益氣湯, 人蔘黃芪散, 秦芫蠶甲散 등을 處方한다고 하였다.

羅氏는 脾胃를 重視한 동시에 各各 臟腑의 脾胃에 대한 影響에 대해서도 重視하였다. 그는 “因飢飽勞役, 脾胃虛弱, 而心火乘之, 不能滋榮心肺, 上焦元氣衰敗, 因遇冬冷, 腎與膀胱之寒水大旺, 子能令母實, 助肺金大旺相輔, 而來剋心乘脾, 故胃脘當心而痛.”<sup>34)</sup>이라고 하여 脾胃氣가 약해짐으로 인해, 陽氣가 上行하여 心에 入하고 肺에 貫하는 것을 못하고, 腎과 膀胱의 寒水는 도리어 心을 凌蔑하고 脾를 遏抑여겨 心胃痛의 病機를 조성한다고 분석하였다. 또 그는 “論云: 春宜緩形, 形緩動則肝木乃榮, 反靜密則是行秋令, 金能制木, 風氣內藏, 夏至則火盛而金去, 獨火木旺而脾土損矣. 輕則飧泄, 身熱脈洪, 穀不能化, 重則下痢, 膿血稠粘, 裏急後重”<sup>35)</sup>이라 하여 飧泄이나 痢疾은 다 肝膽이 脾胃에 影響을 준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羅氏의 疾病에 대한 認識이 단지 受病하는 臟器에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進一步하여 그 連繫된 臟器에서 考慮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2) 脾胃內傷病을 治療하는 특징

羅氏의 脾胃內傷病에 대한 治療는 본래 『內經』의 “脾苦濕, 急食苦以燥之”<sup>36)</sup>, “脾欲緩,

32)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455.

33)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58.

34)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199.

35)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39.

36)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42.



急食甘以緩之，用苦瀉之，甘補之”<sup>37)</sup>의 精神에 依據하여 甘辛溫補，慎用寒冷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下法을 濫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羅氏는 “健脾者必以甘爲主. 黃帝鍼經云 榮出中焦，衛出上焦是也. 衛爲陽，不足者益之必以辛；榮爲陰，不足者補之必以甘，甘辛相合，脾胃健而榮衛通”<sup>38)</sup>이라 하고, “緩中益脾，脾不足者以甘補之，補中助脾，必須甘劑. 喜溫而惡寒者，胃也，寒則中焦不治. 內經曰 寒溼所勝，平以辛熱，散寒溫胃，必以辛劑”<sup>39)</sup>라고 하여 理論중에서 甘辛溫補의 劑가 治療중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意義에 대해서 밝혔다. 또한 그는 歷代 醫家의 甘辛溫補中의 劑에 대해서 특별히 追崇하였는데 아울러 臨證을 結合하여 變化를 주어 新方을 創製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傷濕을 治療함에 過汗시켜 亡陽인데 다시 誤下하여 狂亂抽搐에 이르는데 썼던 人蔘益氣湯은 東垣의 人蔘益氣湯의 基礎위에 五味子를 去하고 當歸, 白朮, 陳皮, 黃栢을 加하여 이루었고, 氣虛頭痛을 治療함에 發汗後 다시 痛하여 安臥하지 못하고 惡風寒, 不喜飲食, 氣短而促, 懶于言語에 쓰는 順氣和中湯은 補中益氣湯중에 白芍藥, 川芎, 蔓荊子, 細辛의 네가지 藥을 加하여 造成하였다. 中氣虛弱, 脾胃虛寒, 飲食不美, 氣不調和에 쓰는 沈香桂附丸은 東垣의 沈香溫胃丸에서 變化시킨 것이고, 中氣不調, 滯于升降, 內傷自利, 臍腹痛에 쓰는 參朮調中湯은 東垣의 調中益氣湯과 草豆蔻湯에서 變化시킨 것이다. 慎用寒冷하고 下法을 濫用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은 『衛生寶鑑·藥誤永鑒』중에서 깊고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 목적은 下法을 輕率하게 사용하는 弊端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그는 高郎中의 弟媳이 産後에 冷物을 먹어 腹痛하는데 誤下하여 致死한 때에 “凡醫治病，虛則補之，實則瀉之，此定法也. 人以血氣爲本，今新産血氣皆損，胃氣虛弱，不能腐熟生硬物，故滿而痛也，復以寒劑攻之，又況乎夏月陰氣在內，重寒相合，是大寒氣入腹，使陰盛陽絕，其死何疑. 難經曰 實實虛虛，損不足而益有餘，如此死者，醫殺之耳.”<sup>40)</sup>라고 하였다. 또 晋才卿이 衄血病을 앓을 때에 醫師가 자주 苦寒之劑를 썼는데 止而復發하여 마침내 낫지 못하고 점차 食減肌寒하고 語音低微할 때에 말하기를: “彼惟知見血爲熱，而以苦寒攻之，抑不知苦瀉土，土脾胃也. 脾胃，人之所以爲本者，今火爲病而瀉其土，火固未嘗除而土已病矣.”<sup>41)</sup>라고 하였다. 上述한 病例로 羅氏의 脾胃疾病에 대한 治療는 李杲와 완전히 一致할 뿐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見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三焦의 辨治를 重視함

羅天益은 張元素, 李杲의 說을 繼承하였는데 臟腑辨證의 啓示下에서 독특하게 三焦의 辨治를 상세히 說明하였다. 그는 三焦는 元氣布散을 아우르며 五臟六腑를 포괄한다고 인식

37)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46.

38)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42.

39)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41.

40)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24.

41)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15

하고 “心肺在膈上爲陽，腎肝在膈下爲陰，此上下臟也。脾胃屬土，處在中州，在五臟曰孤臟，在三焦曰中焦”<sup>42)</sup> 라고 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臟腑의 三焦分屬을 說明하였다. 그는 三焦氣機의 條達通泰는 臟腑安和의 必要條件이며 특히 “中焦獨治在中”이니 이에 氣機升降의 樞紐이라고 認識하였다. 가령 飲食不節하여 脾胃受傷하면 三焦氣機의 變亂으로 病이 될 수 있다고 하여 “內經曰 水穀入口，則胃實而腸虛，食下則腸實而胃虛. 更虛更實，此腸胃傳化之理也，今飲食過節，腸胃俱實，胃氣不能腐熟，脾氣不能運化，三焦之氣不能升降，故成傷也.”<sup>43)</sup>라고 하였다.

羅氏는 三焦의 氣機를 重視한 것으로 因하여 臨證中에서 三焦氣機의 變化로 疾病을 分析하였다. 不澹吉歹이 腹瀉후 胸中閉塞作痛할 때 말하기를 “予思靈樞有云 上焦如霧，宣五穀味，薰膚充身澤毛，若霧露之溉，是爲氣也. 今相公年高氣弱，自利無度，致胃中生發之氣，不能滋養心肺，故閉塞而痛”<sup>44)</sup>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審證用藥方面에 있어서도 上中下 三焦의 구분을 두어 辨治하였다. 『衛生寶鑑』의 ‘瀉熱門’과 ‘除寒門’의 兩篇중에서 羅氏는 ‘上焦熱’, ‘中焦熱’, ‘下焦熱’, ‘上焦寒’, ‘下焦寒’의 구별을 論述하였고 아울러 進一步하여 여기에 ‘氣分寒熱’과 ‘血分寒熱’의 異同을 밝혔으니 비교적 完整하게 三焦의 審證用藥의 模式을 提出한 것이다.

여기서 그의 三焦에 대한 審證用藥을 살펴보겠다.

上焦熱은 積熱煩躁，面熱脣焦，咽燥舌腫，目赤鼻衄，口舌生瘡，譫語狂妄，睡臥不安，胸中鬱熱，頭目昏痛 등의 證이 있고 治法은 清熱解毒，瀉火解鬱이 마땅하니 涼膈散，龍腦鷄蘇丸，洗心散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中焦熱은 脾熱目黃，口不能吮，胃中實熱 및 各種熱毒 혹은 食中毒，酒毒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瀉火解毒，調和脾胃가 마땅하니 調胃承氣湯，瀉脾散，貫衆散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下焦熱은 下焦陰虛，脚膝軟而無力，陰汗陰痿，足熱不能履地，不渴而小便閉而及痞滿燥實，地道不通 등의 證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滋陰養血，潤補下燥或清熱瀉火，苦寒下奪이 마땅하니 大承氣湯，三才封髓丹，滋腎丸 등을 위주로 한다.

氣分熱은 心胸大煩，渴欲飲水，肌骨蒸熱，或寒熱往來，蓄熱寒戰 등의 證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清氣瀉火，生津止渴이 마땅하니 白虎湯，柴胡飲子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血分熱은 熱在下焦，與血相搏，其人如狂 및 一切丹毒，積熱壅滯 등의 證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清熱涼血，瀉火破瘀가 마땅하니 桃仁承氣湯，清涼四順飲子 등을 위주로 한다.

上焦寒은 積寒痰飲，嘔吐不止，胸膈不快，若暴感風寒上乘于心，令人卒然心痛或引背膂，乍間乍甚，經久不差로 表現되고 治法은 散寒蠲飲이 마땅하니 鐵刷湯，桂附丸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42)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41.

43)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40.

44)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362.

中焦寒은 脾胃冷弱, 心腹疝疼, 嘔吐瀉利, 霍亂轉筋, 手足厥冷, 腹中雷鳴, 飲食不進 등의 證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溫中散寒이 마땅하니 附子理中丸, 大建中湯, 二氣丹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下焦寒은 肝腎陽虛, 筋力頓衰, 腰脚沈重, 小腹疼痛, 小便自利, 精冷遺滑 등의 證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溫中補下元이 마땅하니 八味丸, 天眞丹, 還少丹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血分寒은 下焦元氣虛弱, 精氣不足, 小腹疼痛, 皮膚燥澁 등의 證으로 表現되고 治法은 收斂精氣, 補眞戢陽이 마땅하니 巴戟丸, 神珠丹 등의 方을 위주로 한다.

## 2. 學術評論

羅天益은 李杲의 學術思想을 全面的으로 繼承했을 뿐 아니라 아울러 『內經』, 『難經』을 研究한 基礎위에 諸家の 說을 모아서 進一步한 發展을 이루었다. 이에 대해 誠如蔣씨는 말하기를: “惟眞定羅謙甫氏, 獨得李氏之正傳,……論病則本素難, 必求其因. 其爲說也詳而明, 制方則隨機應變, 動不虛發. 其爲法也簡而當, 大抵皆采措李氏平日之精確者, 而間隱括己意, 旁及于諸家者也.”<sup>45)</sup>라고 하였다.

羅氏는 脾胃所傷의 病機를 論述할 때에 ‘食傷脾胃論’과 ‘飲傷脾胃論’을 말하였는데 ‘食傷’과 ‘飲傷’ 두가지는 病機 및 治療상에서 같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 勞倦所傷으로 인해도 ‘虛中有寒’과 ‘虛中有熱’의 다른 轉機가 있는데 前者는 理中丸, 建中湯 등으로 溫中散寒하고 後者는 桂枝加龍骨牡蠣湯, 黃芪建中湯 등으로 益氣建中, 潛降陰火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이것은 李杲의 論述에 비교하여 明顯하게 條理가 있고 臨證實際에 密接한 것이다.

內傷病의 治療에 대해서 羅氏는 한결같이 甘辛溫補로 法을 삼았는데 選方用藥이 李杲의 益氣升陽 一類에만 局限되지 않고 歷代의 名方, 예를 들어 建中湯, 理中湯, 四君子湯, 枳朮丸 등을 施用하였고 아울러 이 基礎위에 變化를 주어 新方을 創方하였다.

羅氏는 三焦理論에 根據하여 寒熱疾病을 三焦, 氣, 血 條分の 상세한 分析和 辨證論治로써 把握하였으니 실제로 이것은 그만의 유일한 見解였다. 淸의 葉桂立의 “河間溫熱, 須分三焦”의 說은 羅氏의 說을 繼承한 것인데 河間이라고 잘못 稱한 것이고, 吳瑭이 創立한 溫病의 三焦病機學說 역시 이런 影響을 받았다. 이것으로 羅氏가 後世의 溫病學派의 論點에 대하여 큰 影響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羅天益은 實踐을 중시한 醫學家이고 空談을 崇尚하지 않았으며, 그의 理論과 主張은 實際經驗을 探究하고 分析한 各種 論述 가운데에 一貫되게 나타나 있으니 『衛生寶鑑』에 記載된 大量的 醫案은 바로 그의 學術主張이 잘 나타난 驗證인 것이다.

45) 羅天益 著, 衛生寶鑑·蔣用文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 1.

## V. 結論

羅天益의 字는 謙甫이고 元代 眞定の 藁城(지금의 河北省 正定の 藁城縣)에서 宋嘉定十三年(1220年)에 태어나서 元至元二十七年(1290年)까지 살았는데 그의 生涯와 著書, 醫學思想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羅天益의 著書는 『內經類編』과 『衛生寶鑑』이 있는데 『內經類編』은 이미 遺失되어 傳해지지 않고 『衛生寶鑑』이 羅氏의 現存하는 유일한 著書이다. 『衛生寶鑑』은 1281년에 編纂되었고 24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2. 羅天益은 李杲의 脾胃內傷學說을 繼承하여 脾胃를 人體의 根本으로 보아 脾氣의 升發에 관하여 重視하였다. 脾胃의 生發之氣를 培養하면 健康이 維持되나 이에 反하면 脾胃의 受損으로 五臟六腑가 稟受를 받지 못하여 百病이 生한다고 주장하였다.
3. 羅天益은 脾胃所傷의 病機를 論述함에 食傷脾胃論과 飲傷脾胃論으로 구분하였는데 食傷과 飲傷은 病機 및 治療上에서 같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勞倦所傷을 虛中有寒과 虛中有熱로 구분하여 虛中有寒은 理中丸, 建中湯 등으로 溫中散寒하고 虛中有熱은 桂枝加龍骨牡蠣湯, 黃芪建中湯 등으로 益氣建中, 潛降陰火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羅天益은 各 臟腑 相互간의 影響에 대해 重視하여 疾病에 대한 認識을 受病하는 臟器에만 局限시키지 않고 連繫된 臟器에서도 包括하여 考慮하였다.
5. 羅天益은 治療에 있어서 甘辛溫補, 慎用寒冷을 주장하였으며 下法을 濫用하는 것에 대해 反對하였고, 選方用藥에 있어서는 李杲의 益氣升陽에만 局限되지 않고 建中湯, 理中湯, 四君子湯, 枳朮丸등을 施用하였고 또한 이 基礎위에 新方을 創方하였다.
6. 羅天益은 臟腑辨證에 있어서 三焦의 辨治에 대해 重視하여 熱을 上焦熱, 中焦熱, 下焦熱, 氣分熱, 血分熱로 구분하고 寒을 上焦寒, 中焦寒, 下焦寒, 血分寒으로 구분하여 辨證用藥하였다. 이것은 吳瑭이 創立한 溫病의 三焦病機學說에 影響을 주어 後世의 溫病學派의 論點에 큰 影響을 미쳤다.

本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研究를 持續的으로 하여야겠다.

## 參考文獻

1. 孔健民 著,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2. 裘沛然 主編, 中國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3. 裘沛然·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4.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5期卒業準備委員會 編譯, 東垣脾胃論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5.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8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內外傷辨惑論·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6. 朴贊國·尹暢烈 編, 醫學漢文, 서울, 成輔社, 1987.
7. 史仲序 著, 中國醫學史, 中華民國, 國立編譯館, 1984.
8. 羅天益 著,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9. 俞慎初 著, 中國醫學簡史,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10. 李 華 碩士學位論文, 趙獻可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1998.
11. 李經緯·李志東, 中國古代醫學史略, 河北省,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12. 정 면·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朝醫學 形成에 미친 영향」,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Vol. 9.
13. 丁光迪 編著, 中醫各家學說·金元醫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7.
14.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